

안녕하세요, 저는 2018-2학기 오스트리아 TU Graz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산업공학과 김수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수학 기회를 주신 공대 대외협력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U Graz에서의 6개월은 졸업을 앞둔 8학기임에도 불구하고 후회 없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 정말 자세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말씀해주셔서 최대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raz에서 생활하면서 아마도 돈이 가장 자주 나갈 식생활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외식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편이고, 장을 봐서 요리를 해 먹는 경우에는 싼 편입니다. 저는 Graz에서 생활하는 동안 거의 대부분을 기숙사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저는 짐을 쌀 때 여유가 있어 한국에서 올 때 작은 전기밥솥을 챙겨왔는데, 혹시 챙겨오지 못하더라도 중고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웬만한 기숙사들은 모두 식기가 잘 구비되어 있으니 냄비로 밥을 지어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토스트기, 오븐(기숙사와 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Neubaugasse에는 있었는데 Moserhofgasse와 Steyergasse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전자레인지, 인덕션 모두 잘 구비되어 있는 편이고, 수저도 충분했습니다. 다만 냄비나 후라이팬의 코팅 상태는 좋지 않으므로 짐의 여유가 된다면 챙겨오시거나, 이곳에 오셔서 아마존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해 개인용을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Neubaugasse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Neubaugasse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주변에 큰 슈퍼마켓들과 저렴한 식료품 가게가 많다는 점입니다. Graz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하고 유명한 슈퍼마켓인 BILLA, HOFER, SPAR 모두 기숙사에서 1~3분 거리에 있고, 같은 거리에 야채와 쌀 등을 싸게 파는 아랍 슈퍼마켓과 5분 정도 거리에 AKDAG이라는 터키 과일 가게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만들어 먹기 쉬운 파스타를 주로 해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스테이크, 제육볶음, 삼겹살, 찌개 등 다양한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2명 기준으로 2~30유로쯤 장을 보면 일주일 넉넉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각 슈퍼들은 가격대가 서로 비슷하고 취급하는 물건도 비슷한데, 저는 특히 BILLA를 애용했습니다. 삼겹살, 목살 같은 고기가 질이 좋고 저렴한 편이었고 PB 상품인 Clever 상품들이 매우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 자주 이용했습니다. 저는 겨울학기에 교환학생을 갔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을 초반에만 즐겨 먹을 수 있었는데, 여름학기에 가시는 분들은 꼭 Neubaugasse 근처에 있는 AKDAG 과일가게에 들러서 제철 과일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1kg에 1유로 등)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Graz의 모든 슈퍼마켓은 일요일에 열지 않으며(중양역 SPAR 제외, 유일하게 일요일에 여는 슈퍼마켓입니다), 토요일에도 일찍 닫는 편이니 만약 Graz에 도착하시는 요일이 금/토요일이면 일요일에 먹을거리도 꼭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몇몇 식당은 일요일에 열긴 합니다!

Graz에는 한인마트가 없고, 아시안마트만 두 개가 있습니다. Hauptplatz에 위치한 BoboQ와 강 왼편에 있는 Easy Asia인데, 둘 다 구글맵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BoboQ가 접근성이 좋아 많이들 방문하는 곳인데, Easy Asia가 좀 더 멀지만 더 크고 약간 더 저렴한 편입니다. 고추장, 참기름, 간

장, 라면, 냉면, 칼국수, 소면, 김치 등 한국 식재료를 웬만하면 다 찾아볼 수 있지만 가격이 확실히 한국에 비해 많이 비싼 편이고, 매일 같은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들어오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제품이 항상 구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특히, 고춧가루는 아주 크고 굵은 김장용만 판매하니 한식을 해먹으실 생각이 있다면 꼭 가져 오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옷이나 가방, 신발 같은 잡화를 많이 구매한 편은 아니었는데, 교환 기간 동안 Black Friday와 신년맞이 세일이 있어 정말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Graz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Hauptplatz와 Jakominiplatz 사이로 H&M, ZARA 등 옷 가게가 많고, 4번 트램 종점인 Murpark에는 Graz 최대 아울렛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잡화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특히 Murpark에는 Nike Factory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팩토리 매장이니 시중보다 30% 내외로 저렴한 편인데 TU Graz 학생증을 가지고 가시면 학생 할인도 10% 더 적용되기 때문에 꼭 들러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보다 다양하고 예쁜 상품들이 많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통신비가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HOFER 유심을 현지 친구에게 추천 받아 사용했는데, 한달 10유로라는 가격으로 6GB(오스트리아 외 EU 지역에서는 3.2GB), 음성/문자 1000분/통을 사용했습니다. HOFER에 가서서 계산대 옆에 있는 유심을 사서 끼우시고 Mein HoT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본인 인증을 마치고 번호를 받아 선불로 요금을 충전하는 방식인데, 처음 유심 구매 후 돈을 충전하는 것은 굳이 다시 HOFER를 방문하지 않고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도 가능하니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HOFER 유심으로 유럽 어디에서나 잘 사용했고, 유일하게 지원이 안되는 스위스에서만 새로 유심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영국에서도 잘 사용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아마 이전 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날씨가 좋으면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고 여건이 안되면 트램이나 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Graz의 큰 단점 중 하나가 바로 구글맵에서 대중교통 지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Graz 안이나 근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구글맵에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이상한 루트나 아예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로 대중교통 어플을 이용하셔야 하는데, BusBahnBim이라는 어플과 Quando Graz라는 어플 중 하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스트리아 안에서는 이렇게 구글맵이 통하지 않는 도시가 몇 곳 있다고 하니 이 때도 사용하셔도 됩니다(ex. Quando Salzburg). 이 어플을 이용하면 Graz 내 버스와 트램을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도와 같이 최단 경로를 아주 잘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보통 Neubaugasse에서 가장 먼 캠퍼스인 Inffeldgasse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어플에서는 10분 정도 걸어서 Kunsthaus에서 트램을 타고 Inffeldgasse를 가는 방법만 보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Keplerburke에서 트램 4,5번을 타고 Hauptplatz에서 갈아타서 Inffeldgasse로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적게 걷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시면 자기만의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는 다른 분들께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정보를 적어주셨는데, 혹시 지원을 망설이고 계시거나 지원 과정, 생활 등 모든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외협력실을 통해 제 연락처를 받으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Graz는 제2의 고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제게 너무 좋은 곳이었고, 교환학생 6개월 동안 10개국 넘게 여행 다니며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대 주관 유럽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TU Graz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